

극단세벽

연명숙 1인극

어머니 날 놓아주시고...



극단세벽의 연극정신은
변혁을 향한 자기성찰을 기초로 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극단새벽

국제연극평단 선정 '96 올해의 좋은연극상 수상작

윤명숙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극단새벽의 연극정신은 변혁을 향한 자기생존을 기초로 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십천무대 개관 4주년 기념
특별공연

극장·연출 = 이영진
무대장치 = 이영진
기획 = 십천무대 기획제작팀

- ▶ 국제 연극평단 선정
『96 올해의 좋은연극상』 수상
- ▶ '97 공주 아시아 1연극제 참가작
- ▶ '98 북포 연극극 한마당 참가작

윤명숙 1인극

어머니를 놓으시고...



1998년 11월 19일(목) ▶ 12월 27일(일) 소극장 **십천무대**



연희극 앙식 실험집단
saebyeok.com/art.or.kr

평등이 지체가 함께 오시면 30% 할인혜택(예매기준)을 드립니다.
피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면 30% 할인혜택(예매기준)을 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오시면 30% 할인혜택(예매기준)을 드립니다.

영란, 정란, 쌍둥이 자매,
아들 못 낳아
소박폐기로 살다 간 어머니,

이땅의 여성들이 살아온
혹은, 살고 있는
가슴 아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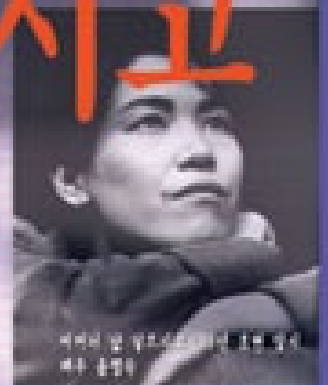
극단세백 1세대 배우
울명속을 잇는 차세대 주자

변현주 1인극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서울문화재단 후원, 서울문화재단 기획공연!

어머니 날 낳으시고

작/연출 : 이성민
조명 : 이현식
음악, 음향 : 임태성
기획 : 극단세백 기획창작실



색깔있는 무대... 짧지만 긴 여운

■ 타계한 연극배우 윤명숙씨

무대에 서면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은 듯 피어나는 그는 천생 연극배우였다. 연극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늦은 결혼으로 얻은 아이 걱정에 아이가 초등학교생이 되면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도 보지 못하고, 연극 무대도 다시 밟아보지 못한 채 마흔 두 해의 생을 마감했다.

15년 여 동안 부산 연극계에서 고집스럽게 색깔 뚜렷한 작품을 올려왔던 전극단 새벽 대표 윤명숙(사진) 씨가 지난 27일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눈에 띄게 큰 상을 수상하지도,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지만 묵묵히 부산 연극계에서 자리를 지켜온 그의 죽음은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산간호대학 재학 시절 경제 논리로 운영되는 병원에 희의를 느끼고 극단 문을 두드린 그는 15년에 걸친 연극 인생 내내 색깔있는 연

극을 고집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하소연 할 곳 없는 원폭피해자, 길거리에서 나앉은 달동네 사람들이 그의 연극 주인공이었다. 사회성 짙은 연극들은 그를 수시로 경찰서 문을 넘나들게 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다. 1996년에는 '어머니 날 낳으시고'로 국제연극평단이 수여하는 '올해의 좋은 연극상'을 수상했는데, 이를 특별하게 여겼다고 한다. 극단 새벽 이성민 상임연출가는 "당시 상금으로 받은 7만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매일 열어봤다"며 "그냥 술 한잔 먹고 말자고 해도 안통하더라"고 말했다.

노동자·원폭피해자 등 사회성 짙은 작품

'어머니 날 낳으시고'로 국제연극상 수상

30대 중반 결혼에 성공한 그는 2000년 들어 남편이 있는 전남 장흥에 정착했다. 무대 미술에서 배운 솜씨를 살려 남편과 함께 대나무 공예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병원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았고, 올해 급작스럽게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그의 패유를 위해 후배들이 소극장 실천무대에서 그의 대표작인 '어머니 날 낳으시고'를 공연하고 있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극단은 1주기가 되면 '윤명숙 연극제'를 열어 그의 열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70여만원

‘가부장 틀’서 억눌려 살다 간 우리 어머니들 거친 삶 무대에

부산에서 민중 연극을 표방하며 지난 24년 동안 활동해온 극단 새벽의 대표적 레파토리 작품 ‘어머니 날 낳으시고’(작연출 이성민)가 올해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금·토·일 부산 중구 광복동 소극장 실천무대에서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왜곡되게 형성된 여성역에 대한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갖는 여성문제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1인극이다. 지난 1996년 첫 선을 보인 이래 꾸준한 호평을 받아왔다.

극은 일란성 쌍둥이 영란과 정란 두 자매의 삶과 회고를 통해 가부장적 제도 아래 억눌려 살다 간 우리 시대 어머니의 거친 삶을 살갑게 그려내는 방식이다. 아들을 낳으려고 작은 부인을 얻은 아버지, 이 바람에 뒷전으로 밀려나며 겪는 어머니의 수모, 결국 뒤늦게 쌍둥이 자매를 낳았지만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극단 새벽 ‘어머니 날 낳으시고’ 공연

여성문제 내면 들춰보는 1인극

15일~내달15일 소극장 실천무대

소박을 맞게 되는 어머니 등등의 이야기다. 열핏 진부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오래 동안 이 땅의 여성이 겪어 왔고 지금도 적잖은 여성이 경험하는 현실임을 고려하면 가볍게 지나칠 수만은 없는 주제다.

거기다 1970년대 달동네 사람들과 철거민들의 삶, 1980년대 노동자들의 속앓이 등 극이 보여주는 사회구조의 모순은 타자의 삶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다가선다.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에서 열연 중인 윤명숙씨.

영란과 정란, 두 자매가 사는 낡은 서민 아파트가 배경. 어머니의 3주기 제삿날, 신인문학상을 탄 언니가 취재 온 기자에게 들려주는 어머니와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회상이 재현된다.

당초 이 작품은 21살에 극단 새벽에 입단해 부산 연극판을 묵묵히 메워왔던 배우 윤명숙이 맡아 작은 체구로 무대를 확 채우며, 관객을 웃고 울렸다. 그런데 그가 암 투병 중이다. 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는 극단 새벽의 2세대 배우랄 수 있는 변현주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 공연은 그런 윤명숙의 쾌차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변현주는 “윤명숙 선배가 암과 싸워 이겨내길 간절히 바라며 선배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무대에 선다” 고 밝혔다.

7월 1일에는 극단 창단 24주년 기념으로, 마지막날인 7월 15일에는 윤명숙의 96년도 공연 영상자료를 덧붙여 극이 진행된다. 공연 금 오후 7시30분, 토·일 오후 5시, 051-245-5919.

임광명기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12년을 달려 온 배우, 변현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특별공연 (미리 예약해주세요.)

6월 10일(일) 당신을 초대합니다.

7월 1일(일) 극단새벽 창단 24주년 기념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3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쌍둥이 자매가 함께 오시면, 부부가 함께 오시면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6월 15일(금) ▶ 7월 14일(일) 금 오후 7시 30분 / 토, 일 오후 5시

소극장실천무대 문의 극단새벽 기획제작실 051)245-5919

관람료 일반 15,000원 청소년 10,000원

인터넷예매 극단새벽홈페이지 **티켓365** 지정예매처 부산은행전지점, 영광도서, 동보서적, 남포문고, 문우당서점, 청하서림, 부산도서, 면학도서, 향학서점, 대한도서
문화예술연대기금 회원, 국도예술관 회원, 현혈증서를 가져오시면 입장 시 2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꿈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배우, 변현주 1인극



극본/연출 서영경
기획 극단세벽 기획서점협찬

2월 5일(목) ▶ 3월 29일(일) 소극장실천무대(광복동) 문의 245-5919

목,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5시 일반 20,000원 (예매 10% 할인) 청소년 10,000원
지역예매처 영광도서, 문우당서점, 부산도서, 동아서적 / 전화예매 가능(권함 2일전까지)

30%할인 사진예약 이벤트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생동아 지매, 부부기 함께 오시면, 1984년생이 오시면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부모님 생일 이벤트 부모님께 특별한 생일을 만들어 주세요. 예약하시면 공연을 마친 후 공연장에서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도서 이벤트 매회 30만여 권에게게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에서 후원해주신 도서 '한-어 태그놀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홈페이지 saxbyeok.communart.net / 검색창에서 극단세벽을 치세요.

극단새벽

연희극양식실험집단
saebyeok.communeart.net

극단새벽 서울나들이
- 창단 25주년 레파토리 순회공연

1인 9역, 1인칭 화자의 교차를 통해 두 사람의 관점을 접할 수 있는 독특한 구성의 일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부산연극 지킴이, 변현주 1인극

나의 서른 시절은 늘 회색이었다.
시위대열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독한
저칼한 가스를 들이마시며 비친듯이 가루를 날리다
숨이 가파 오면
문득 올려다보던 하늘,
언제나 잿빛이었다.
나의 하늘은
언제나 화가 나 있었고
또 공허했다.



10월 8일(목) ▶ 11월 1일(일)

소극장축제(대학로) 월, 화, 수 공연 없음

문의 051) 245-5919 예약문의 010-2576-6557

목, 금 오후 8시 / 토 오후 4시, 7시 30분 / 일 오후 3시

관람료 일반 25,000원 (예매 23,000원) 대학생 20,000원 청소년 15,000원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링크,



새우당

전화예매 가능, 검색창에서 극단새벽 을 치세요.

극작/연출 이성민
기획 극단새벽 기획제작실

극단새벽 창단 25주년 레파토리 기획 공연1
소극장 '품' 봄 기획공연

대안문화 공간 소극장 '품' 에서만나는
시 땅의 여성, 우리 이웃의 이야기
변형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1인 9역, 1인칭 화자의 교차를 통해
두 사람의 관점을 접할 수 있는 독특한 구성의 일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작/연출 이성민

기획 극단새벽 기획제작실 / 소극장 품 운영기획팀

4월 9일(목) ▶ 26일(일) 소극장 품(성남동 중부도서관 앞)

목, 금 오후 7시 30분 / 토, 일 오후 5시 문의 052)244-9654 / 010-9038-8840

홈페이지 saebyeok.communart.net (인터넷예매, 전화예약 가능)